

광주송정역 철도 개통 100년



광주송정역이 오는 10월 1일이면 개통 100주년을 맞이한다. 사진은 현 송정역의 모습.

‘日 수탈통로’서 ‘호남물류기지’로 내년 KTX 호남선 개통 새 도약

2017년 복합환승센터 건립
내일 광산문화회관에서 기념식

광주·전남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해온 광주송정역이 오는 10월 1일 개통 10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913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주송정역(당시 송정리역)은 그해 송정리~목포 구간을 이었고, 이듬해 송정리~대천 구간을 연결하면서 호남선 철로를 완성시켰다. <탄생에 얽힌 애환의 역사>일제 강점기인 1913년 태어난 송정리역은 호남 교통의 중심지로, 광주·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탄생 배경에는 역사적 고통이 숨겨져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고 가져다줄 주체는 일본이었는데, 철도 설치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수탈 창구에 대한 필요 때문이었다. 나주 등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목포까지 쉽게 이동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탈통로’로 송정리역을 만든 것이다. 10년 후인 1922년 7월 1일 광주~송정리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도 철도의 시대를 열게 된다. 철도 나이로 보면 송정역이 광주의 형인 셈이다.

송정역이 생기면서 인근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3, 8일마다 열리는 송정오일장이 생기면서 철도를 이용해 나주, 함평, 장성, 광주 등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허허벌판이던 주변 지역도 새로운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교통수단 변화로 쇠퇴의 아픔>=“잘나가던 송정역도 한때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교통수단의 변화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전국의 고속도로망이 대폭 확장되면서 고속버스의 시대에 이어 자동차 1가구 1대 시대, 비행기 시대가 열렸다. 결국 기차의 교통 수단의 위력으로 밀려났다. 송정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광주역이 중심지의 역할을 하면서 송정역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다행히 철도교통도 새로운 기술로 진화했다. 지난 2004년 호남고속철(KTX)이 개통되면서 서울 용산~송정역 소요시간이 4시간대에서 3시간 이내로 줄었다. 여기에 광주 지하철 1호선이 송정역과 광주를 연결하면서 접근성과 편리성도 높아졌다. 이후 매년 광주송정역 이용객 수가 150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시상발전 교통요충지 호남 교통·물류 중심지로 제도약>=송정역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광주~남평~화순~보성~순천~여수를 잇는 경전선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고, 광주지하철 1호선과 연결돼 있다. 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나주~호남고속도로를 잇는 국도 13호선이 송정역 앞뒤를 관통하고 있다. 여기에 영광으로 가는 도로는 서해안으로 연결돼 있고, 바로 옆에는 광주공항도 위치하고 있다. 송정역은 2014년 KTX 호남선 완전 개통도 앞두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93분, 인천 공항까지는 2시간 9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호남선 개통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돼 새 역사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도 건립된다. 대형마트와 호텔,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부지면적만 2만2000㎡에 이른다. 광주시 김집중 교통정책 과장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호남권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송정역 철도개통 100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기념식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

‘무리한 입법’이나 ‘지방자치 훼손’이나

대법 “광주시의회 지방공기업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단체장 인사권 관행 제동... 시의회 “시민 알권리 무시”

대법원이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의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광주시의회가 재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시정례안 재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

육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결국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이번 조례가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상위법의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으로 여겨진다”며 “본질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보호’가 ‘시민의 알권리 및 공개적인 자질검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 시의회는 “이번 사안도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시행된 지 23년째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도적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집행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집행금지 효력이 분안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만 이번 결정이 분안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취안저우시-요코하마

문화도시 교류 본격 추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체결 실무회담 조속 개최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국의 광주시, 일본 요코하마시, 중국 취안저우시 등 3개 도시간 문화교류 행사가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회의에서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속히 실무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3개 도시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 부장, 시모무라 하루분(下村博文) 일본 문화과학성 대신이 광주에서 채택한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광주-취안저우시-요코하마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약속이다. 이 합의문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비롯해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중국 천청중 취안저우 부시장, 일본 하야시 우미코 요코하마 시장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회의에서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축제·공연, 전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한·중·일 예술제 및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교류 주관 교류행사 공동참여 ▲동아시아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등이 담겨 있다. 광주시는 부속합의서와 관련, 내년에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지난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중국의 차이우(蔡武) 문화부 부장(오른쪽), 일본의 시모무라 하루분(下村博文) 문화과학성 대신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인형극의 제작, 예술가 교류, 정음성 국제음악제의 일본·중국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가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알리고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진룡 “부석사 불상 반환...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이 빚어진 자신의 ‘부석사 불상 일 본 반환 언급’과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

는 나라나) 똑같다”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날 열린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시모무라 하루분(下村博文) 일본 문화과학성이 자국 언론과 간담회에서 “유 장관이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요구에 (한국)정부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불상은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고, 한국 법원은 지난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장관은 “다만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 공동본점 | 227-4474
- | 금호지점 | 383-4474
- | 풍암지점 | 653-4474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인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 5. 연락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요.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